

“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종에게 무슨 명제가 있습니까.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부리기 위해서 바위라든가 공쇠농같은 별명이 있을 뿐 이름이 없으니 명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은혜요 알아주지 않아도 고마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게 내 것이 없으니 스스로 이룬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주의 소유물인데 내게 무슨 소유권이 있으며 등기부에 올릴 이름 석자가 없는 주제에 내 소유 내가 한 일이라 감당치 않은 말입니다. 시간도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고난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할 때입니다. 앉지 않아야 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건디기 어려운 시련이 옵니다.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손발이 절단되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었습니까. 천 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종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인에게 따지거나 제 의견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발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는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시중 들어야 합니다. 일하려면 하는 것이고 밤을 새우려면 새우는 것뿐이지 거기에 거절이나 불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듀로스)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듀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겨자씨 만한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은 이같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에겐 보상도 없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다 해도 모두 주님께서 하신 것뿐입니다. 나는 그 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감지덕지 할 뿐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알아서라도 주셔야 할 터인데 종에겐 그런 보상심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종은 무엇을 소유해서도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뿐입니다.

종에겐 상대적 감사나 순종이 아니라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은 없습니다. 받았으니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빼앗기고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일이 안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히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안되고 남의 인정 없어도 주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칠 만큼 수고를 하고도 한 것이 없다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서양인들에겐 이해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정직하지 못한 지나친 겸양이라 할 지 모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이에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부족하고 주고도 부족하고 오히려 죄송해 하는 마음 그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이는 남을 실족케 안 할 것이며 다른 형제의 과실을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것입니다.

-한국장로신문 [1339호] 2012년 10월 13일에서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예배당 좌석 공간이 충분하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주일예배 이외의 각 교육부서 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예배는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방역 및 교인 확인 절차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방역 체크를 위해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만 운행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주차 후, 지하 1층 계단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교인증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하 1층 만차시에는 운전자는 지하 1층에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지하 2층 또는 3층에 주차 후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올라와 발열 체크와 교인증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ø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214_sermon.jpg

17일(수) 재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40일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이 기간에 서울교회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교육전도사 김은숙 양하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사아시아), 이은준 · 강해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해(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란소프,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진(군선교) / 정상진 · 홍성임(필라위), 이재을 · 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 · 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

■ 고전 6:17-20

대가가 클수록 가치는 커집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자유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독쌍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어미어미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자식들 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마라

너를 값으로 주고 샀다는 것은 내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그의 것이 되었고 주님과 연합하게 된 한 영이 되었습니다(17절).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몸에 붙은 지체이고 그는 내 몸의 머리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의 의중과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역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사 43:1-3) 하나님께서 “나는 내 것이라”라고 선언하신 근거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최고의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나의 안전보장이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고후 5:15).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아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줄 알지 못하니(15절)고 물으면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엡 4:30).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음행을 피하라고 말 씀하고 있습니다.(18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육정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허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는가?”(잠 27-28). 음행은 저항함도 유약하지만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강력하게 저항한 것이 아니라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소극적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20절). 사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만 이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 사실이 사도 바울도 잘 알기 때문에 19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주일 성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깨끗한 물질생활입니다. 십일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거나 은혜를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맺는 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서 감람산 뱃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향 나무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마21:3). 두 제자는 가서 실제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나귀의 주인의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 둘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갈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 소리도 안하고 내어 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된 새해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서명철 목사	노문환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43: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36(시 90)...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2(2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7: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기”... 서정원 목사
 * 찬 송 Hymn559(30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84:10 인 도 자
 찬 송 43(57) 다 함 께
 기 도 윤성남 집사
 성 경 창 19:30-20: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온 세상의 도리” ... 설 교 자
 * 찬 송 260(194)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인터넷 영상)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I 부 김선영 권사
 성 경 겔 34:3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양과 목자”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민·박수강·김복화2

설 교 전재홍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민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고전 7:4)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minster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328명	365명	1,693명	282명	1,380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30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 난세를 사는 슬기

다윗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사랑을 받은 존귀한 인물이다.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분이 높아져도 처신은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시 그는 낮고 천한 목동이었다. 그러나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타도하고 구국공신이 되어 사울왕의 사위감으로 발탁되었을 때 그는 겸손히 사양을 했다. 그렇다. 사람이 출세쯤 했다고 자존망대하다가는 삼천척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법이다.

다윗은 작은 은혜도 크게 받을 줄 아는 슬기를 가진 이다. 왕의 자리가 양위된 것도 아니고 나라의 절반을 떼어준 것도 아니건만 자기를 죽이려는 올무인 줄도 모르고 다윗은 감지덕지 내려준 부마의 자리를 받았다.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이 오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오며 햇빛에 감사하면 일곱 날의 빛이 올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다.

겸손과 감사 그것이 난세를 사는 슬기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금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